

“에클레시아 : 교회란 무엇인가?”

■ 이종윤 원로목사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 한다. 이 단어는 헬라적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먼저 헬라적 배경에 의하면 백성의 총회(Assembly of People)를 소집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 백성은 그들의 시민권을 소지한 백성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결의는 국가의 법으로 확정되었고, 그들의 권위는 모든 결정과 목적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을 선출하고 해임하고 도시의 정책 방향을 정하였다.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맺기도 한다. 장군을 선출하거나 장교를 선임했다.

이들의 모든 총회는 기도와 제사로 시작했다. 그리고 매우 민주적으로 시행했다. 평등과 자유의 두 개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가졌다. 회람사회에서 ekklesia는 시민의 총회 소집을 의미한다. 로마세계에서는 ekklesia라는 말을 번역하지도 않았다.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이 단어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총회요, 하나님이 소집하는, 하나님이 소집자다.

Ekklesia의 히브리적 배경은 70인역 성경에서 카할(qahal)이라는 소집한다(to summon)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또는 백성의 회중을 뜻한다. 70인역 성경에서 70회 이상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듣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회중은 백성의 무리다.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함께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함께 부름 받은 백성의 모임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히브리어 에다(eddaah)는 회중이 모이든 아니든 다만 회중을 뜻하지만 카할(qahal)은 실제로 모인 것을 의미한다.

본래 ekklesia는 세상으로부터 끌어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배타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부터 나오도록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소집된 사람들은 선택된 소수가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에 의하여 소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ekklesia는 그들이 함께 모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총회다.

신약에서 ekklesia는 세 가지로 사용된다. ① 우주적 교회 ② 지역교회 ③ 실제적으로 특정 장소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신자들의 총회다. 바울은 개별적 회중을 교회라 불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개별적인 교회보다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우주적 전체다. 우리는 작은 회중의 회원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지 빌딩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그들 마음을 바친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머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야만 교회는 살고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심부름을 하고 말을 한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교회라 불렀다. 모든 가정 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성찬식의 주인 되시듯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한국장로신문 2012년 6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을 여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 예배 직후에 개최되어 찬양예배 전까지 교인 투표가 진행된 후, 찬양예배 직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또 인원제한으로 정해진 대면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교회에 오시면 본당 2층 로비에서 청빙 투표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서울교회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에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90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역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선교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선(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임목사 조동수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h1>서울교회</h1>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우리는 포도원 농부입니다 ”

■ 마 21:33-46
포도원 농부 비유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43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
그러나 포도원 비유는 마냥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만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들을 책임지는 농부입니다. 각자가 경작하는 포도원은 국가나 교회, 이웃과 직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세계, 즉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인 것을 잘 생각하며,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열매: 주님의 뜻을 행함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본문의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지만, 탐심에 이끌려 주인에게 불순종하며 결국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면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 핵심적 열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농부들이 행한 가장 치명적 잘못이 무엇입니까? 소작료를 내지 않거나 하인들을 폭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 농부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열매는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른 태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맡기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46: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3(시 12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1(4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21:33-4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우리는 포도원 농부입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59(51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95:1-2 인 도 자
 찬 송 368(486) 다 합 께
 기 도 안홍희 집사
 성 경 행 2:14-3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 설 교 자
 * 찬 송 182(169)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정승자 권사 II부: 안선희 권사
 성 경 행 2:37-4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새로운 공동체”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정승자 권사 II부: 안선희 권사
 성 경 행 2:37-4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새로운 공동체”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 손달익 목사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 9월 5일(주) 주일 1부 예배 후 개회, 찬양예배 후 속회하여 개표
 - 투표 장소 : 본당(2층)
 - 투표 시간 : 공동의회 개회 이후부터 찬양예배 직전까지
 - 투표 자격 :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 결 혼
- 예상진 군(10교구 예완식 집사, 송금자 권사의 장남) 전희진 양(전유식, 박옥진 씨의 장녀) / 9월 11일(토) 오후 12시20분 강동웨딩 KDW 3층 마이다스홀(02-477-7700) / 5호선 강동역 하차 3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71명	385명	1,856명	427명	1,757명

참된 절제

건강을 남용하면 병자가 되고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시간을 남용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후회하게 된다. 지나치게 쓰는 것을 과용이라고 한다면 탐욕, 무리, 혹사, 방탕은 이에 속하는 말들이다. 분수를 알고 지키고 족할 줄 아는 것을 절도 있게 사용하는 적용이라 한다면 절제, 극기, 절약의 덕은 이에 속할 것이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한다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소망과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고 공수포만 남발하듯 남용하는 사람도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절제란 아끼고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선 눈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감사와 봉헌과 사랑의 통곡을 하는 것이며 위선과 가증한 행위를 배격하고 적극적 헌신과 실천과 희생의 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가령 시간을 절제하는 이에게는 바쳐야 할 일에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절약이요, 절제인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